

SK SMART CITY SearchLight

연구원. 신서정 / 3773-9978, seojeong@sk.com

연구위원. 손지우 / 3773-8827, jwshon@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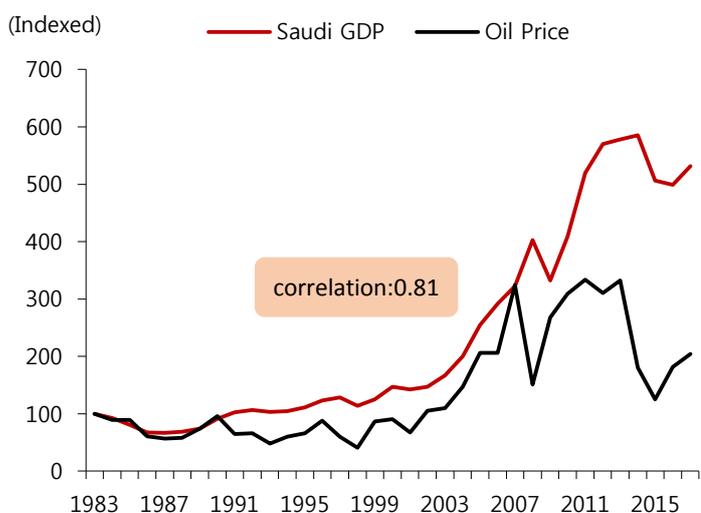
사빅의 지분 매각, NEOM 추진을 위한 실탄 확보

관련 뉴스 요약 "아람코 땅 파서 번 돈, 애플의 2배"

- 약 30여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Aramco의 경영 실적 공개. 채권 발행 추진 목적
- 18년 기준 영업이익 2,240억 달러(254조원), 순익 1,111억 달러(126조원). 압도적인 세계 1위
- 사우디 정부재정 87%를 아람코가 충당(세금, 배당금). 저유가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 투자 확대는 당연 행보

Implication

사우디는 대표적인 석유 의존국



자료: Bloomberg

관광 # AI # 5G # 신에너지

- 그동안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던 사우디가 30년만에 아람코 재무현황을 공개하였는데 요.
- 이번 공개의 이유는 PIF보유 석유화학업체인 '사빅'의 지분(70%) 인수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PIF는 왜 갑자기 사빅의 지분을 매각하는 걸까요? 주목적은 MBS가 추진중인 'NEOM에 대한 실탄 확보'로 판단합니다. 이로써 사실상 아람코 IPO 철회에 대한 대체재를 마련한 모습인데요. NEOM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켓컬리’의 성공은 ‘새벽’에 있다

관련 뉴스 요약 “기업가치 6000억 마켓컬리..글로벌 VC서 1000억 유치”

- 새벽 배송의 선구자 격인 마켓컬리가 인수합병을 제안하는 물류기업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독자생존중
- 세콰이어캐피탈 중국 본부와 DST가 750억원 규모/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나머지 주주들이 250억원 투자
- 새벽배송 시장에 대기업 유통업체들까지 뛰어드는 와중에, 마켓컬리 독보적 점유율 확보 인상적

Implication

새벽 배송 업계 현황

구분	배송지역	주문 및 배송시간
마켓컬리	서울 경기 인천일부	밤 11시 이전 주문 다음날 오전 7시 전 배송
이마트	서울 경기 일부	오후 6시 이전 주문 다음날 오전 6~10시 배송
헬로네이처	서울 경기 일부	밤 12시 이전 주문 다음날 새벽 배송
쿠팡	서울 경기	밤 12시 이전 주문 다음날 오전 7시 전 배송
티몬	서울 경기 일부	밤 12시 이전 주문 다음날 새벽 배송
GS프레시	서울 경기 인천일부	밤 11시 이전 주문 다음날 새벽 1~5시 배송
현대백화점	서울 경기 인천일부	오후 4시 이전 주문 다음날 오전 7시 전 배송
롯데슈퍼	서울 일부	밤 10시 이전 주문 다음날 새벽 1~7시 배송

자료: 언론종합

스마트물류 # 이커머스 # IoT

- 15년 약 100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새벽배송 시장이 19년 4,000억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통업체들의 ‘새벽’전쟁에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 단연 눈에 띄는 기업은 ‘마켓컬리’인데요. 15년 약 29억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18년 약 1,800억으로 추정될 만큼 무서운 Top-line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상품의 질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유통업체의 경쟁력은 ‘배송의 속도’가 되는 모습인데요. ‘셋별배송’을 통해 콜드체인 및 새벽배송의 구축이 가히 마켓컬리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물류’ 특히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양 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